

광복 75주년, 교회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

다가오는 광복 75주년이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주는 감회는 새롭다. 백년 전 조선은 일제 식민지 아래 있었고, 우리 겨레는 나라를 잃었다. 1945년 미국이 주도한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는 일제(日帝)에서 해방 되면서 자유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에 의하여 곧 38선 이북(以北)과 이남(以南)으로 분단되었다. 반쪽의 광복이었다. 오늘날 그 이남인 한국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으나, 이북인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하여 아직도 인권과 자유가 없고 경제적인 빈국(貧國)으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가진 독재 군사국가로 오명을 가지고 있다. 광복 75년을 회고하면서 다음 8가지 의미를 성찰해 본다.

1. 광복 73년은 비록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세계사에 유례 없는 성공의 길이 었다.

광복 75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해방과 나라를 되찾은 감격을 경험한 세대에 게 놀라운 성공 이야기로 실감된다. 옛 더미에서 일어나 기간 산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터득하여 경제를 발전시킨 20세기 후반 한국의 역사는 실패와 망국과 좌절로 중첩된 20세기 전반의 일제의 식민지가 된 우리 역사와 좋은 대조가 된다.

해방 후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인한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식민지로 수탈된 국토는 더욱 황폐화되었다. 우리는 세계 최빈국으로서 어려운 시절(보리고개와 나무 껍질로 연명)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DNA인 포기없는 끈기와 근면, 피 땀의 노력으로 1970년대 산업을 일으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리고 1987년 후진국이 겪는 군사 독재통치를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로 바꾸어 역동적 민주주의



▲ 한기총, 광복절 74주년 1만여 명과 광화문 일대서 '8·15 범국민대회'이 중요하다.

로 이루어 내었다.

우리나라는 2천년대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적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의 결과 광복 후 채 60년만에 대한민국이 준(準)선진국으로 떠오른 것이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취다. 교육수준의 수직적 향상,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산업화, 세계에 유례없는 전국적 산림 녹화, 정치적·제도적 민주화 성취에 우리는 민족적 긍지를 느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자학적(自虐的) 비판론을 극복하며 경제발전에서 기초한 국력 신장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광복 75년의 과정에 나타난 빛과 그림자가 극단적으로 엇갈려도 전반적 통계 지표는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한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꾸었던 것처럼 수많은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제3세계 노동자들이 '코리아 드림(Korean Dream)'의 희망으로 한국 사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생생한 증거다.

2. 국가 기초를 세운 이들, 이승만 이시영 등 건국지도자들의 자유민주 정신 계승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나라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 정신 위에 세운 이승만·이시영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건국 지도자들의 공을 잊어서는 안된다. 해방 후 이승만, 김구 등 자유민주인사들이 귀국하기 전에는 박헌영과 여운형이 손잡고 조선인민공화국(1945년 9월 6일)이 선포되어 '좌파 천하'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北에선 10월 14일 김일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미(美)군정(軍政)은 인민공화국(人共)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정장관 아널드 소장은 "38도 이남에는 오직 하나의 미군 정부만이 있다"(10월 10일)는 성명을 냈다. 공산주의 세력은 이후 유혈 시위 등으로 미군정과 충돌하며 축소·몰락의 길을 걸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민족 지도자들이 잇달아 귀국해 국민여망이 이들에게 쏠리게 된 것도 좌파 몰락의 큰 원인이다.

이승만은 해방 후 10월 16일, 김구 등 임정 요인은 11월 23일 귀국한다. 당시 소련의 지침을 받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남북 합작이란 시대에 맞

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의 몸에 한편이 죽어가는 경우에는 살아 있는 편이라도 완전히 살려서 죽은 편을 살리기를 꾀할 것"(1948년 3월 1일)이 이승만의 '현실주의'였다.

반면 김구의 '이상주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1948년 2월 10일)는 것이었다. 불과 한 달 간격으로 발표된 성명이었다. 그리하여 남한에서만 자유선거에 의한 단독정부가 세워졌다.

남북협상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두 건국 지도자의 자유민주제도에 대한 신념은 동일했다. 이승만과 김구는 독립운동 내내 협력 관계였으며 반(反)공산주의 이념에 철저했다. 1948년 남북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했지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건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시념이 있는가에 대하여 국민들 가운데 의문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다. 문정부는 이러한 의혹을 그의 대북정책을 통하여 풀어주어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민주

정신을 빼는 통일 지상주의는 우리가 이룬 73년의 성과를 무위로 만들 수 있다. 통일 이전 먼저 자유 민주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3. 지난 75년 동안의 공과를 진솔하게 반성하자.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직 먼 것도 사실이다. 여태까지 달려온 73년은 땀과 눈물의 길이였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엔 커다란 걸림돌이 놓여 있다. 불만과 불신이 끓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나라를 지옥에 빙드는 '헬(hell)조선'이란 말까지 나왔다.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며 미래는 불확실하다.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는 5포(抛)세대라 일컬어진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청년 세대가 포기하는 것도 늘고 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拋棄)한다는 이른바 '3포(抛)세대'는 옛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2030세대'(20대와 30대를 아우르는 말) 2명 중 1명은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나친 외형팽창적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고,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위주의 사회가 된 데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생존 경쟁에서 뒤지진 세대들이 많아진 것이다.

현 정부 들어와 우리나라 제조업 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전히 우리 산업의 뼈대이자, 고용 창출의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신호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제조업 위기는 경쟁국들, 특히 중국의 약진, 환율과 세계경기 침체 등 외부 여건 악화가 영향을 미쳤지만, 부의 창출보다는 분배에만 편향된 현 정부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는 적절한 경제 정책 추진(새로운 성장동력과 첨단 신 기술 개발 육성)이 미흡했다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일부 치우친 육성책을 내세운 면도 없지 않다.

4. 이념의 경직성에 의한 적폐 청산을 끝내고 신뢰와 화해의 공동체로 나아가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포퓰리즘에 근거한 국가주의로 치달고 있다. 지나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으로 헌법에 없는 결정적으로 위배된 것이 없는 두 전직 대통령과 각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까지 적폐청산 대상으로 수사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사회정의의 최후 권위인 기관에 대한 흔들기와 평가절하로서 이런 수사결과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핵 폐기 협상에 있어서 인권 말살 폐쇄 및 세습 왕조의 군사 독재 후에 김정일은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현정부는 지나친 유화 정책을 펴고 있다. 두 차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 비핵화와 핵폐기 절차는 큰 진전이 없다. 내외외강한 국가는 반영하는데

2면에 계속

Contents

2 교단소식

3-5 교계소식

6 신학산책

7-8 신앙과 삶



청운교회는 '작은한 사람이 있는 교회, 속박이 있는 교회, 복음의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 소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3번길 4
>>> 경인교대 6번출구
연 락 처 032)544-2341
F A X 032)543-0182
홈페이지 www.cwch.org

청운교회
CHUNGWON PRESBYTERIAN CHURCH

광복75주년 특집 기고

"한국교회, 하나로 뭉쳐 기도로 궂기해야 할 때!" - 광복75주년과 한국교회의 책임



박한인 장로

대한민국장로연합회 공동대표
6·25진실알리기본부 사무총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광복75주년이 되는 날이다. 75년 전 하나님은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36년간 드리웠던 어둠의 장막을 걷어 버리고 생명의 빛을 회복시켜 주셨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교회는 독립, 자주, 구국운동에 앞장서며 겨레의 정신적 스승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왔다. 한국교회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등불이요 희망이 되었던 것은 조국의 독립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독립과 건국에 앞장선 기독교

1910년3·1독립만세운동 당시 전체 인구2천만 명 중 기독교인은18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독립선언 민족대표33인 중 기독교인이16명이나 되고, 만세운동에 앞장서고 신사참배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살이한105명 중94명이 역시 기독교인이었다. 또 한1936년 신사참배 문제로200여 교회가 강제 폐쇄되었으며, 50여 명의 교역자가 순교하고2천여 신도가 투옥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역시 눈물어린 기도의 결과였다. 1946년 신학통치가 논의될 때 전국교회가3일간 조국의 독립국가 건국을 위해 기도했고, 1948년 제헌국회도 이승만 임시의장이 요구하여 이윤영 의원의 대표기도로 시작되었다.

1950년6월25일 김일성의 기습 남침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26일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찬성9표, 기권1표로UN군을 즉시 파병기로 결의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참전을 권고하였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상임이사국 소련이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면UN 참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결의로 미국 등16개국 참전과 의료지원5개국, 기타 물자 지원 등 총63개국이 참여한 것이다.

남침2개월여 만에 남으로 밀려 대구, 부산 지역 낙동강 전선을 최후 방어선으로 하여 이 방어선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회, 목사, 성도들의 눈물어린 기도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발판이 되었고 전쟁 중 위중한 순간마다, 크고 작은 전투의 장면마다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일제 치하와6·25전쟁 중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한 것은 아니었다. 기록에 의하면 교회와 기독교인 중 일부는 독립만세운동 후 한때 변절하여 일제에 충성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회의 종1,540개를 뜯어 전쟁물자로 헌납하고 당시 화폐단위로15만여 원을 전투기와 기관총 제조 기금으로 헌금하였으며, 전승축하회604회, 무운장구기도회9,053회, 위문181

회, 시국강연1,300여 회를 개최하였고, 전국27개 노회, 목사86명, 장로85명이 모여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등 우상숭배와 대일 협력의 부끄러운 역사적 기록도 남겼다. 또한6·25남침 시에는 북괴군의 서울 입성 시2대 국회210명의 국회의원 중48명이 환영식에 참석하고 목사300여 명이 환영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올바른 기독교인들의 눈물어린 참회와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70년대에'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73년)' '엑스포74' '민족복음화 대성회77' 등 대형집회와 전국 각지 교회의 부흥회, 구국기도회 등 성도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영적 성장과 경제 부흥을 가져다 주셨다.

2020 광복절, 기도와 단합 절실

광복75주년을 맞는 오늘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길 원하는가? 복음통일을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존 불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한국이 북한에 의해 흡수 통일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발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보면 그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보인다.

2017년4월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평화무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만남으로 금방이라도 화해와 통일이 찾아올 것처럼 보였지만, 북한 비핵화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우리에게 절대 불리하게 맺어진9·19남북군사합의와'국방개혁2.0'이라는 이름의 개악 조치로 국가 안보의 답은 허물어지고 전쟁 시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인 군대, 거짓 평화 쇼와 무드에 찾아 안보불감증에 빠

진 국민 의식, 전작권 전환 등 무모한 국방정책으로 무너져 가는 한미동맹, 좌우로 편 갈라 극한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과 추종자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깊어져만 가는 경제 불황과 청년실업,주택 정책의 난맥상 등 어느 것 하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심지어 국난의 위기 때마다 나라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종교계(천주교, 불교, 기독교)에서조차 일부 인사들의 비애국적이고 종북적인 자세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따라서2020년8월 광복절을 맞는 현재, 건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3·1운동 때부터 국난 시마다 보여 주었던 간절한 기도와 단합된(목숨을 건)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래전 기독교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부정문제로 발단 된 분열 양상은 한기연, 한교연, 한교총 등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합집산을 거듭하였고, 장로들 역시 그 명칭과 현주소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작년 총선 전까지 이어졌던 광화문 광장에서의 한기총 회장 주관 구국집회는 이러한 분열 양상으로 인하여 교단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참가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각개 약진하여 모여들었지만, 다행인 점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참으로 놀라운 숫자의 국민과 성도들이 모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기독교가 하나의 연합체로 뭉쳐 참가하여 기도하며 궂기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가의 모든 분야를 장악한 위정자들

의 위세에 놀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설교로 성도들을 깨우쳐 주어야 할 설교자의 사명은 뒤로한 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만을 강조함으로써 뜻있는 애국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다.

정부와 여야, 선린 우호관계 정립해야

만시지탄은 있으나 다행히도 지난7월17일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장로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대한민국장로 연합회(약칭:대장연)'를 창립하고 앞으로 조직을 크게 확대하여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하였다.회원 장로들을 통해서 전국의 교회가 참여하여 하나 된 연합체로서 힘을 다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으니 참으로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이 공산화 되면 맨 먼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과 노력 없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주장에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써왔던'진인사대천명'의 철학은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땅히 따르고 실천해야 할 도리라고 확신한다. 허울썩인 평화와 통일을 말하기 전에 당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려내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을 모아야 하겠다.



▲ 필자(왼쪽)가 해병제2사단장 시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여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세워 주셨는데, 이제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닌가를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을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죄인 된 심정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통회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락건데, 정부와 여야 국가 지도자들은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이념과 정략에 따라 편을 나누고 정책적 실수를 덮고 전가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안보와 경제 파트너로서 선린 우호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7:14) **박한인 원로장로**

광복 75주년, 교회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

1면에 이어

헌법상 주적(主敵)인 북한에 대하여 지나친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작 자기들의 국경 동반자였던 전직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현정권의 강경한 적폐 청산 수사와 압박 정책은 우리 사회에 돌이키기 어려운 내부적 갈등과 대결을 초래하지 않을가 하는 깊은 우려가 양심있는 지성인들과 지각있는 일반 국민들 가운데 나오고 있다. 소신있게 일한 전직 관료들을 모두 처벌한다면 앞으로 그 누가 국가를 위하여 헌신있게 일할 것인가? 웬만한 허물은 덮어주는 용서와 화해만이 우리 사회를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도록 만들 것이다.

5. 정권은 한시적이나 민족과 국가는 지속한다. 5년 정권이 백년대계국가 훼손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소득증대 성장론,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인상제 등 반기업 정책이 초래한 영세상인들의 고용 기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서민물가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다. 북한 문제, 경제 살리기, 복지 강화, 정당 혁신, 공공 개혁과 교육 개혁 등 난제가 쌓여 있는 가운데 현 정부는 북한정권 눈치보기, 전문성 부족, 이념적 접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 드루킹 댓글 여론 조

작사건, 국민합의 없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 전 국민의 67.4%가 반대하는 국가인권기본정책(NAP, 성평등정책 및 차별금지법 시행) 무리한 추진 등 제왕적 포퓰리즘 시행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국가 발전의 길에 장애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의 실재를 인정해야 하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갖도록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상식에 벗어난 현 정부의 지나친 대북유화 정책이 북한 핵폐기는 커녕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로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국제무대에서 CVID(완전히 검증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CD)로 바뀌고 있으며, 1차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 문대통령에게 말했다는 "1년 내 비핵화" 약속이 부동(浮動)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유화책이 어디로 갈 것인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크다.

통일협상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자유민주 헌법정신에 합치한 통일정책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개정 헌법에 자유민주를 삭제했다가 수정하는 등 해프닝을 연출했고, 이 정부가 만드는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흠대받고 대한민국이 '한반

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말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자유민주 정신이 흠대받고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문정부는 양식있는 지성인들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 장래를 위하여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6. 통일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한국 내의 안정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은 정권 잡은 자들 사이의 흥정 대상이 아니라 양 주민인 북한 주민과 한국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아무런 상관 없는 통일협상이 무슨 의미 있는가? 2차까지 있었던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송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것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한국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며,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비핵화 협상과정에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송환협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에 보조를 맞추려하는 것은 한국을 여전히 핵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부임한 미국 해리스 주한 대사가 말하는 것 처럼 "종전 선언이 있으려면 비핵화를 향한 핵시설

의 완전한 명단을 제출 등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안목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화해 일편도 정책보다는 한국사회의 화해와 내적 통합이 우선시되어야 더 강력하게 통일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한다.

7. 한국교회는 보수 연합기구들이 연합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2015년 12월 19일 한국통계청 종교 발표에서 개신교 신자가 967만명(19.6%)으로 전통종교인 불교 신자 762만명(15.5%)를 제치고 제1종교가 되었다. 천주교인들은 389만명(7.9%)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신자까지 합치면 한국인 1350만명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내리심이다. 그리고 개신교가 성장 가운데 많은 사회적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은 것을 보여 준다. 개신교가 사회적 걱정과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에 주도 종교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신자수를 가진 보수교회는 2012년 한기총이 비리로 내분이 일어나 한기연, 한교총 등으로 분열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교총이 올해 8월 중 법인 설립까지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연합단체의 분열은 고착화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보다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추진하는 기구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된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지도력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다. 한기총, 한기연, 한교총이 각각 권력욕과 명예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에 실현되도록 조속히 연합하고 하나된 기구를 만들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요청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정부와 사회가 개신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8. 한국교회는 국가주의와 제왕적 포퓰리즘으로 나아가는 정부의 선한 감시자가 돼라.

정권은 5년, 길어야 10년이지만 국가와 국민은 지속적이다. 우리 사회는 진보정권 10년, 보수정권 10년을 경험한 바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나 국민과 국가는 지속적으로 있고, 역사의 주체가 된다. 정권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한시적 정치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너무 이념편향적이고 국민지지에 기인한다는 포퓰리즘적인 신념에 도취되어, 인기영합적으로 제왕적으로 나라 전체를 국가주의로 몰아가려고 한다. 이러한 비판이 오늘날 양심적 지성인들 사이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때 일수록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하는 예인자적 안목과 지혜와 이를 외칠 수 있는 양심의 소리와 헌신적 행동이 요청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자들과 즐겨 만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뜻을 경청하는 기도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양식 있는 국민들의 비판적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강단 설교와 시민운동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 정부를 끌고 가는 위정자들에게 예언자의 소리로 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만년 통해 한반도를 지켜주시듯이 반쪽인 광복인 우리나라를 앞으로 온전한 광복인 자유민주 통일한반도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다.

이연종 기자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편집자주 -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며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의 전문입니다.



김웅
국회의원

사직 설명서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러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점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킴을 맡깁니다. 킴을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엔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 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게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엔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겨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옛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쑥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뭘했습니까?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꺾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갑자기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이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험란한 유로시스템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평범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비파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훈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자신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출타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 드림

이순신 장군을 사형에서 구한 "오리 이원익(梧里 李元翼) 같은 정승은 없는가?"

자신을 낮추고 오직 나라와 백성만 떠받든 공복,

‘그가 있으면 온갖 사물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소박한,

그러나 비범한 조선의 대표적 청백리 초가집 명제상 오리 이원익 대감



▲ 광명에는 청백리로 유명한 오리 이원익 대감의 묘역과 오리 이원익 대감을 기리기 위한 오리서원이 있습니다

대위같은 계급에서 별 두개 소장으로 파격진급을 하고 현지에 부임한 이순신은 당시 '경상 좌수사 박홍'과 '경상 우수영원균' 그리고 '전라 우수사 이억기' 여기에 전라 좌수영 절도사로 내려 왔으니 예나 지금이나 군대 조직에서 파격적인 계급장을 달고 내려온 이순신을 보고 이들이 가만 있었을리가 있었겠는가?

1597년(정유년) 2월 원균의 모함으로 이순신은 '한산통제영'에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어 '국형장'이 열리고, 선조임금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문무백관(200명) 모두가 이순신은 역적이오니 죽여야 하옵니다 하고...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문무백관들 모두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고 선조임금(선조임금도 속으로는 동조함)을 압박하고, 심지어 이순신을 발탁해 주고 6계급 파격으로 진급을 시키는데 크게 힘을 써준 유성룡까지도 '공은 공 사는 사'라고 하며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는 문무백관들의 의견에 반대를 못했으니, 당시 이순신의 역적누명 상황이 어땠겠는가를 미루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런데 왜?

이들이 걸려도 이순신의 형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가? 당시에 영의정 겸 도체찰사 (국가비상사태 직무 총사령관)인 '오리 이원익'(梧里 李元翼)이 선조임금의 어명으로 임진왜란의 전신상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신상에서 아무리 임금과 문무백관들이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쳐도 '도체찰사'인 이원익의 승락 없이는 선조임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원익은 거듭되는 선조임금의 형 집행 재촉에, 청사에 길이 남는 그 유명한 명 대사... '전하께서 전신 중에 신(臣)을 폐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신 또한 전쟁중에 삼도수군통제인 이순신을 해임 못하옵니다.' 라는 이원익의 이 말 한마디에, 선조 임금도 체념을 하고 드디어 이를이나 걸린 이순신 '국형장'에서 문무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체찰사가 그리 말을 하니, 이순신이 죄가 없는가 보구나'라며 이순신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자, 당시에 문무백관 199명 대 1 즉, 이원익 딱 한 사람만이 반대를 하여 이

순신을 살려 낸 것이다.

'안민이 첫째이고 나머지는 군더더기일 뿐.' 자신을 낮추고 오직 나라와 백성만 떠받든 공복, '그가 있으면 온갖 사물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소박한, 그러나 비범한 조선의 대표적 청백리 초가집 명제상 오리 이원익 대감...

세월이 400년이 지났건만 시대만 변했을 뿐, 정치권의 행태는 변함이 없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음을 알아주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가 않은것이 본래 사내대장부들의 기질이다. 그것도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전쟁통에는 더하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이순신장군은 행복한 분이셨다. 조선 500년의 상징 청백리 오리 정승 이원익 대감이 계셨으니.....

오늘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원익(五里)같은 청백리 대감은 어디에 계신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생각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출처 : 오리 이원익 대감과 함께하는 예술여행

“北 억류된 국민(선교사) 6명 송환하라” ...3일만에 청원 5만명 넘어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받고 하루 10시간씩 7~8년제 복역 중”



▲ 지난달 23일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라며 보여줬던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왼쪽부터)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국민 6명을 송환을 정부에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일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6일 저녁 6시 25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5만2044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은 오는 9월 3일까지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총 2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캡처.

“Save 6 Koreans”으로 시작되는 이 청원글에서 청원자는 “지금 북한에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하게 억류되어 있습니다”라며 “김정욱(56세), 김국기(66세), 최춘길(61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입니다”라고 밝혔다.

청원자는 “이들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을 사랑한 사람들”이라며 “그러던 중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간씩 7~8년제 복역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이어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조차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반드시 가족과 조

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도 이들의 송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며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는 먼저 이들의 생사를 확인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고 적었다. 청원자는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강력한 국민송환 의지를 국민과 전 세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식문서로서 표현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청원 참여는 관련 사이트(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419)에 들어가면 누구나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 3명(김정욱·김국

기·최춘길 선교사의 사진)의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자에게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후보자가 답하자 지 의원은 “2010년 이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라며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을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제가 그 여섯 분이 북에 억류되어 있거나 이런 사정에 대해서 모른 건 아니고, 사진으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하신 선교사 분들을 비롯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남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지 의원은 “우리 정부는 헌법에 따라 국제법상 불법으로 남북 억류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 소환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강영철기자

서사라(서상아) 목사(미 LA 주님의사랑교회)의 저서, 신학적으로 조명

2020년 8월 10~11일,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채플실



▲서사라(서상아) 목사(미 LA 주님의사랑교회)

천국과 지옥의 지속적인 체험을 통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 영의 간증을 전하는 서사라(서상아) 목사(미 LA 주님의사랑교회)의 저서들을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사)기독교국제선교협회의 주관으로 지난 8월 10~11일 양일간 서울 연지동 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린 신학포럼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유수 신학자들이 대거 발제자로 나서 서 목사 저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연구 결과를 전했다.

그간 발간하는 책 마다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키며, 미주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아온 서사라 목사였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연구나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었다.

금번 포럼은 목사와 그의 저서에 대한 공신력을 갖춘 사실상의 첫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조강연자로 나선 권호덕 교수(전 백석대 교수) 외에도, 조상열 박사(전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예영수 박사(전 한신대 신대원장), 서영곤 박사(전 웨신대학원대학교 교수), 홍용표 박사(전 서울한영대 교수), 서요한 박사(전 총신대 신대원 교수), 이재범 교수(전 예명대학원대학교 총장대행), 엘머 레이 마스터즈 박사(넬시머대학교 명예총장), 서진경 박사(예장선교 증경총회장) 등이 발제자로 함께했다.

△ '기독교 신학자의 임무'란 기조강연 권호덕 교수(전 백석대 교수)

“교회의 신학은 논쟁을 통해 확립”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기독교 신학자의 임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 권호덕 교수는 서 목사의 저서들이 아직 신학적 교리로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들로 신학적으로 매우 연구·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특정한 편견이나 억측으로 공정한 연구를 그려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 목사 저서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발제를 주문했다. 특히 신학은 애초부터 해답을 놓고 시작한 것이 아닌 논쟁을 통해 방향을 찾아 왔음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교회의 신학은 한꺼번에 다 이뤄지지 않았다. 예수가 하나님인지에 대한 물음인 ‘기독론’으로 시작해, 삼위일체, 구속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까지 다양한 논쟁 속에서 확립되어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종말론이다. 권 교수는 언제부터인지 신학계에서 종말론에 대한 연

구를 금기하거나, 심지어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에 비해 전천년설은 이단시 하며,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완전히 정제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신학자는 교회의 모든 사건과 문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놓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웠다.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 진리를 변증하는 일을 회피한다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것이다”면서 “신학자란 무자비할 정도로 모든 문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목사 저서에서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아직 신학적으로 교리로 확정되지 않는 주제는 연구대상으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이단 교수라는 정죄를 받았을 때, 그가 자기주장을 끝까지 변호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주제를 포럼에서 다루는 것만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발제 1 ‘하와의 회개에 관한 연구’ 조상열 교수(전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사라 목사, 신학의 새 시도이자 새 관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상열 교수는 ‘하와의 회개에 관한 연구’라는 발제에서 서사라 목사의 하와의 지옥설에 대해 고찰했다.

조 교수는 “서사라 목사는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으나, 한 번 더 지옥에서 그들을 목격함으로써 완전히 믿게 되었다고 말한다”면서 “하와의 선택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만, 원망의 마음을 품은 채 살았다면 그의 삶은 죽음 이후 천국의 삶으로 연장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영생과 연결되는 고리임을 이해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발제 2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체험에 대해’ 예영수 박사(전 한신대 신대원장)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체험에 대해 발제한 예영수 박사는 “개인의 간증으로, 결코 논란이나 시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발제자와 서사라목사, 피종진목사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명 ‘성 밖’의 개념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예 목사는 “서 목사는 성 밖은 예루살렘성의 바깥 어두운 곳으로 이 장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천국에 속한 장소이며, 지옥과는 다른 장소라고 한다”며 또한 성경학자들은 거의 모두 성 밖은 지옥이라고 보고 있으나 엘우드 스코트는 또한 이곳을 낙원에 속한 장소라고 보았으므로 각각 그 묘사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서 결코 서 목사의 간증만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예 목사는 “사람들이 비전으로 꿈으로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은 개인의 간증에 불과하다. 그 간증을 교리화하거나 신학적 학설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발제 3 ‘신학 방법의 새로운 시도이며, 새 관점’ 서영곤 박사(전 웨신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영곤 박사는 서사라 목사를 매우 영성있고 능력있는 개혁주의 목회자로 평가했다. 서영곤 박사는 “그는 그의 작품 총 8권을 집필하면서 천국과 지옥에서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의 거울에 철저히 투영했다.

그의 작품을 대하는 순간 간증수기인지, 성경말씀을 3차원 입방체적으로 주석하는 것인지 매우 신선하고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의 작품을 읽으며, 그 누구도 성경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주 가운데 있는 논리와 사실을 바로 연관시킬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개혁신학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의 체험 중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확인, 이를 책으로 저술한 서 목사의 방식에 대해 “신학 방법의 새로운 시도이며, 새 관점”이라고 말했다.

△ 발제 4 ‘서사라 목사의 성 안, 성 밖의 고찰에 대해’ 홍용표 박사(전 서울한영대 교수)

이 외에도 홍용표 박사는 ‘서사라 목사의 성 안, 성 밖의 고찰에 대해’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평가했는데, 전천년설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서사라 목사의 주장을 설명했다.

△ 발제 5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 수기에 대한 평가’ 서요한 박사(전 총신대 신대원 교수)

서요한 박사는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 수기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을 발제했는데, 먼저 그는 4가지 성경 해

석원리를 설명하고 여러 종교들의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고 또 다른 30여명의 천국지옥 체험자들의 간증에 비해 서목사의 간증이 탁월하게 다름과 십계명의 관점에서 서사라 목사가 지옥을 본 내용을 분석했다.

그 수많은 목격담을 십계명이라는 시각으로 매우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는 서목사가 본 지옥의 형벌을 77가지로 분석하고 십계명과 연관시켜서 기독교들로 하여금 각성하도록 만들었다.

서사라 목사의 저서에 대한 신학 포럼 이틀째 날에는 4명의 발제자가 논문을 발표했다.

△ 발제 6 ‘서사라 목사의 7년 환난기에 대해’ 권호덕 교수(전 백석대 교수)

권호덕 교수는 ‘서사라 목사의 7년 환난기에 대해’ 발제했는데, 7년 환난기는 70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에 대한 것으로서 적그리스도, 두 증인, 첫부활, 광야의 여자 등에 대한 서목사의 해석이 성경본문에 충실하게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서목사가 짐승의 표가 베리침이라는 것을 의사로서 매우 자세하게 그 위험을 설명했다는 점은 누구든지 심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했다.

서목사의 주장은 많은 점에서 독보적 신학자들로 클리포드, 카일, 루폴드 그리고 주석가 이상근 박사와 레온 우드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서목사의 설명은 성도들에게 천국가는 데 필요한 상당히 구체적인 안내서를 제공하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고 한다.

또 권교수는 서목사가 어떤 학설에 의지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해석으로 서목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기존 천년기설들이 교인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발제 7 ‘서사라 목사가 본 천국과 지옥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재범 교수(전 예명대학원대학교 총장대행)

이재범 박사는 ‘서사라 목사가 본 천국과 지옥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는데 그는 먼저 선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설명한 다음, 천국과 지옥을



▲ 신학포럼에 참가한 목회자 및 성도

체험한 서사라 목사의 천국관이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그의 선교열매로 증명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는 서사라 목사가 바울의 소명과 비교하며 부르심을 받은 이후국내외에서 선교활동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인도와 아프리카 벨리제 등에서 수천명의 지도자를 양성함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서사라 목사가 ‘주님의사랑교회’와 ‘새사람영성훈련원’, 그리고 ‘세계선교센터’를 창립하여 목회와 선교를 동시에 협력하는 역동적이고, 이상적인 선교적 교회로 선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매우 평가하며 계속 성공적인 선교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다.

△ 발제 8 ‘서사라 목사의 하나님의 인에 대한 신학적 고찰’ 엘머 레이 마스터즈 박사(넬시머대학교 명예총장)

엘머 레이 마스터즈 박사는 ‘서사라 목사의 하나님의 인에 대한 신학적 고찰’에서 서목사의 저서 “하나님의 인”을 설명하면서 대한난은 마지막 한 이레 가운데 후삼년반과 관계하며 인을 맞는 144000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이 인을 받음으로 성취되는 10가지를 지적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한 그는 휴거문제와 베리침 문제에 있어서 서사라 목사의 주장이 옳음을 뒷받침했다.

‘△ 발제 9 ‘서사라 목사 저서에 나타난 크리스천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서진경 박사(예장선교 증경총회장)

서진경 박사는 ‘서사라 목사 저서에 나타난 크리스천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서목사가 언급한 세 가지 곧 1) 양심에 화인을 맞아 계속 범죄하는 자, 2) 성령 훼방죄를 범한 자, 3)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을 받지 못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외식하는 교인들이 범한 죄로 지옥에 간 자들에 대한 서목사의

체험을 열거하며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도록 경고를 주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대부분의 발제자들은 성경 본문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충실히 연구하여 서사라 목사의 천국지옥 체험과 성경해석이 성경에 근거함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로 수렴되는 것 같다.

그리고 설교한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는 “믿음에 중요한 것은 영의 감동이다.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면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기도 자체가 체험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듯이 기도 속에 영적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사라 목사는 이화여대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 의대 생물학박사를 취득한 의사다.

뒤늦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서 목사는 미국 달톤 신학대학을 입학해, 미 크리스천 처치(디사이플스)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현재는 미 LA에 위치한 주님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원장과, 한국복음화운동본부 해외선교총재, 그리고 남가주 한인목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천국과 지옥 간증수기 1, 2 △성경편 제1권 - 창세기 △성경편 제2권 - 모세편 △성경편 제3권 - 계시록의 이해 △지옥편 △하나님의 인 △여호수아와 사사기 등이 있다.



▲ 인사말을 전하는 서사라목사

칼럼



〈김영규 목사〉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소장
뉴욕과학아카데미(NYAS)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미국화학학회(ACS) 초청회원

“물질적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병행돼야”

성경에 따른 자연의 일반적 계시에 대한 이해는 네 가지 특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계시는 항상 인간을 향하여 적응하시는 계시라는 것, 그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추시더라도 스스로 감추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시는 한 모든 계시는 그 자체로 언제든지 판명하

고 충분하다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시는 언제나 판명되어 있어
신명기 29장 29절에 우리 인간이 율법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고, 계시된 것들은 영원히 우리 인간에게 속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있다. 즉 자연의 가장 신비한 면 원인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인간에게 가깝게 나타난 모든 계시들은 영원히 우리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하셨다’(롬 1: 19, 20)고 첨가하였고 그 보다 일찍이 좀 더 인과적으로 접근하여 이르기를 ‘보이는 것은 나타나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천명하였다(히 11: 3).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그 천명에 따르면 창조나 섭리의 구별 없이 세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화 되었음을 아는 것도 믿음의 방식임을 알리고 있다. 그 말은 내재적으로 혹은 묵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의 궁극적 질서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한편 세계가 그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유지되는 방식 자체가 인간의 근원적 탐구 방식인 환원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는 점점 혼돈이 깊어진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의 물질 세계는 작은 세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큰 세계이고 그런 에너지가 큰 세계로 가는 영역들이 모두 우주의 근원적 세계로서 우주 전체의 비밀이 함께 만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광자와 같은 입자의 운동으로 번역되지 않은 더 작은 세계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눈에 혼돈이 커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이나 자유의지, 의식 자체, 단기 기억, 장기 기억과 같은 가까운 질서들은 가까운 질서들에 대응하는 질서로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주어진 질서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창조 및 섭리와 같은 먼 질서에 관한 문제들을 풀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다. 즉 갑자기 나에게 돌이 날아 올 때 피하도록 주어진 질서들이다. 예를 들어 색이란 질서도 분자 구조의 문제라면, 그 질서를 기존의

질서를 보존하고 파괴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오늘날 인권에 있어 신체 장애자들보다 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정신 장애자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시기인 1880년대부터 이미 뇌의 뉴런 세포들의 상호 관계들이나 그 수상돌기들의 유연성에 그런 정신 장애들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런 가까운 원인들에 의한 치료방식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까지 무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귀신이 들린 자와 현대 문명으로 인하여 특별히 피해를 입어 생긴 정신 장애자들과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입을 수 있는 인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정신 장애들이나 일반 정신 장애들의 경우 뇌 세포들 간에 수상돌기 상 유연성이 떨어져 이상한 오해나 폭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교회 회원들이 종종 오해를 일으킬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죽음이나 암 환자에게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다양한 육체적 현상들을 가지고 구원문제를 논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장애 현상들을 구원 문제와 연관시킬 수 없다. 유아에 대한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론에 의해서 문제를 풀었듯이 오늘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어려운 난제들을 예정론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역사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문제이고 우리의 관찰이나 상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까운 원인들에 대한 인과적 관계가 심오한 세계를 가정할 만큼 심오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미 우리의 물질세계(절대속도 Cm의 세계)의 첫 정보의 단위에 우주의 모든 정보들이 포함되었다면, 이미 절대속도의 운동과 함께 지금의 세계에 깊게 감추어진 어떤 차원들이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어떤 차원들이 얼마나 감추어져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럼에도 그 차원들이 원초적 공간이나 항상 상대적인 시간의 첫 원형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여

기에서 시간의 원형이란 의식의 계속성과 구별된 원초적 공간과 분리될 수 없는 비가역적 질서에 관한 것이다.

다만 어떤 새로운 차원들이 열리기만 하면 그 세계의 절대속도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속도로 움직이는 운동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 다른 운동 자와 절대속도로 거리를 가질 것이고 그 때문에 운동자들은 상호 간에 시간 이 없는 동시성 속에 있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돌렸던 영원성과 무한성이 물질세계의 근원에게도 돌릴 수 있는 한 우리가 가까운 문제들을 풀 때 그렇게 심오한 영원한 동시성과 무한성이 있는 물질적 정보의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합리적으로 푸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시는 항상 합리적 질서 포함해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을 그 보다 더 심오하게 풀어야 할 과제를 교회는 안고 있는 셈이다.

기고

대(大) 한국인 이발사이여라



윤대영목사
부천제일교회

최재영 감사위원장의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질타받음을 보며 이전 대한민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 듯하다.

최재형(崔在亨, 1956)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이자 제29대 감사원장이다. 그는 중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에 입학하자 신촌에서 경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입고 등교를 시켰다. 최재형은 그 친구와 함께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결혼 후 두 딸을 낳았다. 기독교 정신의 정수인 버려진 생명을 사랑하여 두 아들을 입양하였다. 한 사람의 평가는 그의 삶을 보고 평가한다. 판사라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넉넉지 않는 생활 중 입양까지 하여 남의 자식을 길러낸다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의 실천의 극치인 것이다. 그는 공직에서도 사법연수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을 지냈다. 그의 법조인 생활에서도 한 점의 흠집도 없다. 아마 현 정부가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하였을 것이다.

한겨레 신문은 최재형 감사위원장이 원전을 폐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월성1호의 감사는 원전의 반대이든, 찬성이든 상관없이 폐기함이 합리적이나? 국익에 해인가? 득인가를 감사하는 것이며, 감사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밝혔듯이 자신도 위원의 한 사람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국가가 공식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다시 국민의 대리인으로 들여다보는 자리에서 오히려 국회의원들

이 정부(문재인 대통령) 원전을 폐기하고, 녹색 에너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협력하지 않느냐라고 추궁을 한다면 마치 독이 들어와서 세퍼트가 짚는다고 해서 개를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삼권분립에 있어서 국회는 입법이다. 정부는 정해진 법대로 국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법은 헌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의 시녀가 되어 버리면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전체주의로 전락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나 공화국 체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공존한다. 국회의원은 분명한 범주가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당을 위한 당론에 충성하는 것보다 먼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고, 정당인으로서의 찬성, 반대하기 이전에 국민의 뜻에 합하면 찬성, 반하면 반대 표시를 해야 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 국회는 간접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국회의원이 되자면 당의 공전을 받아야 하는 필연적인 절차와 당의 조직을 통하여 선거를 해야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준 부모라도 방법을 했을 때는 헌법대로 판결을 해야 하는 사법부의 윤리가 있는 것처럼 국회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결의해야 하는 의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월성1호와는 감사원이 볼 때, 별개의 사안이다. 효과보다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감사원의 사명이다.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장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며, 정의가 정의로우면, 정의로운 것을 직폐로 보는 패거리 정의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 총장 한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과 결직하고, 검찰 총장은 의전적 존재로 두고자 하는 의도가 짙은 개혁안

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랐다.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범법 사실이나 실정까지 누구도 상관치 못하게 하는 국회와 공직자 되는 것을 보며 전체주의 아래 충성된 신하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결국 국민들까지 절대군주를 위한 노예들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만 같다.

현재의 여당과 정부를 섬기는 인사들은 대다수가 운동권 출신이다. 운동을 할 때 피를 토하며 인권, 민주, 자유를 외치던 분들이다. 그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타도할 대상이라고 외치던 타도 대상보다 더 극심한 독선적 행동을 하고 있다. 현금의 여당과 정부가 하는 정치나 국정이나 공부를 보면 국민은 없다. 오직 대통령의 이념과 국정과 지시에 일사천리로 복종하는 형국이다. 국민의 눈으로 보자. 지금 한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결사의 자유가 있는가? 집회의 자유가 있는가? 자유가 실종되고 말았다. 자유가 실종되면 다음은 전체주의 인민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옛이야기가 생각한다. 임금의 이발사는 이발하고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형을 당한다. 한 이발사는 처형 전 사정을 한다. 절대로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것을 비밀로 하겠다고 맹세를 한다. 풀려났다. 그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큰 느티나무에게 소리를 질렀다.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라고, 그래야 살 것만 같았다. 그 이후 느티나무가 바람만 불면 흔들릴 때마다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를 냈다고 한다. 정의를 죽이면 그 국가는 죽는다. 역사는 증언한다. 정치는 잘못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경제가 망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의가 무너지면 필히 망한다.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제 국민들은 점점 주눅 들고 있다. 모두가 이발사가 되어가고 있다.

기고



김평일장로
전가나안농군학교장

아버지는 ‘씨 뿌린 자’입니다
자식이 눈앞에 태어나는 것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의 씨를 뿌릴 때 그는 이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린 농부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된 자가 취해야 할 마음가짐과 생활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으로 생명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씨를 함부로 뿌리고 밭일을 책임지지 않는 농부는 애당초 농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그러합니다.

자녀 양육은 어머니만의 역할이 결코 아닙니다

엄마 뱃속의 아기도 아버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태교는 엄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기 아이라면 더욱 아버지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태어날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며, 또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많은 아버지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결과만 탓합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책임전가일 뿐입니다.

가정의 정신적 리더가 되십시오
옛 말에 한 집안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면 나랏일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힘을 돈으로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인은 물론 자녀들이 돈의 힘 때문에 아버지를 따르는 집안의 미래는 지극히 어두운 뿐입니다. 돈은 가장 쉬운 수단일 뿐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 줄 아버지들에게

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얻은 가치는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회로 이끌어주는 인도자입니다

아이들은 사회를 보는 시각을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자녀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입니까? 내 아이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에게서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로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들은 한없이 불안해 보인다면 그것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결국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드십시오

시간을 공유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들의 성장과 비례하여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우선 지키십시오. 그들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십시오.

성실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잠시도 쉴 수 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기쁨의 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지고, 또 더 나쁘게는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삶의 과정을 진지하게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삶의 과정을 진지하게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칙있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당신은 어떤 때 화를 내고, 또 어떤 때 즐거워 합니까? 아이들에게 얼마만큼의 자유를 허용하십니까? 용돈은 어떻게 관리해 주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의 기준을 알고, 또 동의 할

니까? 그런 기준을 들이댈 때 말없이 잘 따르던가요?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또한 그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아버지 자신도 그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아버지임을 보이십시오

집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 모두는 각자 나름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러하되, 결정은 아버지가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 불만이 없을 리 없으나 반드시 따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떠돌아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최선을 선택하고 모두의 동참을 요구하는 권위를 지녀야 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아이들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지켜보며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는 부모의 인내심인 것입니다. 핵심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언제라도 다시 기회를 주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응징하는 아버지가 아닌 기회의 아버지가 바람직합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은 자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믿음은 때로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언제나 불신보다는 좋은 결과를 남깁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자식은 항상 부모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을 탓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완전하므로 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항상 격려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연재]이승만 시대(10) 프린스턴대서 박사학위..귀국, 청년 교육..105인사건으로 일제 피해 망명길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드로 윌슨을 만나다

하버드 대학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승만은 뉴욕으로 옮겨 왔다. 그는 유니언 신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교 해외선교부에 갔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알게 된 어네스트 홀 목사를 만났다. 홀 목사는 이승만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나서 그에게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으로 옮길 것을 강력히 권유했다.

다음 날 아침 이승만은 그로부터 속달 우편을 받았다. 봉투 안에는 프린스턴 행 기차표와 함께 프린스턴 역에서 만나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승만은 당장 프린스턴으로 갔다.

프린스턴에 도착하자, 홀 박사는 이승만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장 찰스 어드만에게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신학대학원 기숙사인 칼빈 클럽에서 무료로 먹고 자면서 대학원 정치학과에 다니도록 추천해 주었다. 1908년 9월 학기로 입학이 허용된 것이다. 프린스턴에 있는 2년 동안 이승만은 미국에 온 이래로 가장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학비와 생활비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에만 열정을 쏟았다. 신학대학 기숙사(알렉산더홀과 핫지홀)에 머물면서 신학 강의도 듣고 신학생들과도 친해졌다. 신학대원장 찰스 어드먼, 대학원장 앤드루 웨스트, 그리고 총장 우드로 윌슨은 모두 이승만을 도우려고 했다.

특히 윌슨 총장 부부와 세 딸은 그를 집으로 자주 불러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해주었다. 특히 둘째 딸인 제시가 이승만에게 동정적이었다. 그녀는 나중에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을 때 결혼 청첩장을 보낼 정도로 가깝게 느꼈다.



▲ 프린스턴대 재학시절 기숙사(Hodge Hall)안의 자기 방에서 (1909). 왼쪽 아래 방바닥에 그의 책가방이 있고 오른쪽 벽에 이승만이 즐겼던 테니스 채가 세워져있다. 왼쪽 위편 글씨는 이박사의 친필이다.©



▲ 이승만을 적극 도와준 프린스턴대 윌슨 총장. 졸업식서 이승만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뒤 뉴저지 지사로 취임. 그 2년 후 1912년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윌슨총장은 손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승만은 장차 한국 독립을 도왔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를 강연 연사로 추천했다. 프린스턴에서 이승만은 국제법과 외교사를 전공했다. 그리고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이란 제목의 박사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했다.

논문은 1912년에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그리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공해상의 중립 문제가 떠오르면서,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1910년 6월 14일 졸업식에서 이승만은 윌슨 총장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것은 윌슨이 총장으로서 참석한 마지막 졸업식이었다. 그 길로 윌슨은 대학을 떠나 뉴저지 주 지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1912년 11월에는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사 학위는 받았지만, 이승만은 돌아갈 나라가 없었다. 그가 박사 학위를 받은 지 두 달 뒤인 1910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합병되었기 때문이다.

박사학위 논문이 프린스턴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되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서양에서 전시중립제도가 정착하는데 미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과정을 밝힌 것이었다. 즉, 미국의 탄생과 함께



▲ 1910년 6월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의 박사장정.

전시에도 중립국들의 통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국제관행이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전시에 통상의 자유를 방해한 나라는 주로 해군이 강한 영국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영국에 대해 전시에도 통상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계속 주장했다. 미국은 1812년에 영국과 전쟁을 하면서까지 중립의 권리를 지키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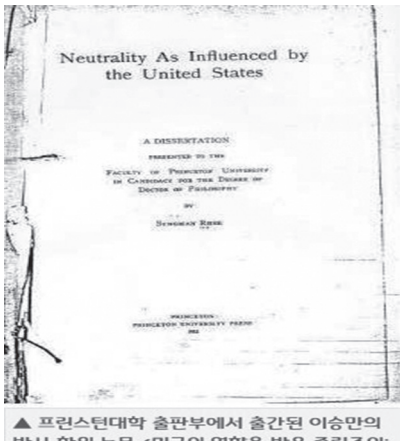
나아가 미국은 그러한 통상의 자유를 중남미 대륙으로 확장시키기도 했다. ‘먼로 독트린’이 바로 그러한 미국의 의지를 표현한 외교적 원칙이었다. 그것은 중남미의 식민지들이 유럽의 모국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그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중립국의 권리로 정당화해 주었다.

그후 “미국의 중립 관행”은 제네바 국제중재재판소와 1908년의 런던회의에서 인정됨으로써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시중립론은 자유주의적인 미국식 국제법이었다. 미국은 유럽의 해양 강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것을 계속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이 논문 주제로 중립의 문제를 다룬 것은 한말의 개화파들이 그것을 한국의 독립 보존 방법으로 생각했던 데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한 때 한국인들은 유길준의 경우처럼 영구중립을 열렬히 희망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가 된 고국땅에 돌아와 YMCA 활동을 하다

박사학위를 받고도 갈 곳이 없어 실의에 빠진 이승만에게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 총무 G. G. 그레그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국에 돌아와 일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떠난지 6년만에 귀국하게 되었다. 1910년 9월 3일 그는 뉴욕에서 영국의 리버풀로 가는 배를 탔다. 태평양 항로를 택하지 않고 대서양 항로를 택한 것은 유럽의 나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의 리버풀에서 배를 내린 이승만은 런던, 파리를 구경했다. 그리고는 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만주에 도착했다. 만주에서 한반도로 들어 올 때 그는 한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일본 관리들에게 여행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슬픔을 맛보아



▲ 프린스턴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이승만의 박사 학위 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주의: Neutrality as Influenced by United States.>

야 했다.

그리고는 1910년 10월 10일 기차로 서울역에 도착했다. 조국이 일본에 병탄된 한달반 뒤였다. 그리고 6년 만에 부친을 만났다.

그는 제일 먼저 한국인들의 큰 지도자였던 이상재(李商在)를 찾아 갔다. 이상재는 한성감옥서 시절 이승만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후 기독교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승만을 아들처럼 아끼고 있었다. 서울 YMCA에서 이승만은 학생부 간사와 청년학교 학감으로 강연을 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당시 이승만은 최고 학력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영향을 받아 미국 유학의 꿈을 키웠다. 그들 가운데는 임병직, 이원순, 허정 등이 있었다.

1911년에는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와 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강연과 설교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자유주의 사상을 불어넣고 민족 의식을 일깨워 주려고 했다.

그 때문에 일본 헌병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특히 윤치호가 경영하는 개성의 한영서원(韓英書院)에서 모인 하령회(夏令會) 이후로 일본헌병의 감시가 심해졌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종로학당



▲ 미국에서 공부하는 이승만에게 귀국하여 YMCA에서 일할 것을 권유한 스코트랜드계 캐나다 선교사 개일.

교장으로부터 일했다. 5년 7개월의 감옥 생활을 겪었던 그에게 체포의 악몽은 건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105인 사건'과 함께 조여오는 일본의



▲ 이승만이 박사학위를 받고 1910년 귀국할 때 뉴욕에서 송선한 여객선 발틱호. 사진 아래의 글씨는 이승만의 친필이다.



▲ 귀국 후 서울 YMCA에서 같이 일하게 된 이승만의 옥중 동지들. 이 사진은 이승만이 서울에 도착한지 한 달 보름 만에 찍은 것으로서 이승만 귀국환영의 뜻을 담고 있다.



▲ 1911년 6월 개성 한영서원에서 열린 제2회 학생하령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앞줄 한가운데 검은 양복 이승만.



▲ 1912년 3월 9일 서울에서 모인 <감리교의 지방 평신도대표 제14기회의> 참가자들. 이 회의에서 이승만은 미국 마네아폴리스에서 열리는 <기독교감리회 4년 총회>의 한국 평신도 대표로 선출되었다. 둘째 줄 가운데 이승만이 앉아 있다.



▲ 이승만이 다시 미국으로 떠나기 앞서 서울YMCA간부들과 찍은 송별모임 사진. 앞줄 가운데 앉아 있는 이승만, 오른쪽에 모자 가진 이가 이경직 목사이다. 아래 글씨는 이승만 친필.

압박

그러나 그러한 이승만의 신중한 처신도 오래 갈 수 없었다. 일제가 ‘105인 사건’을 조작해 개신교 세력의 민족운동을 타도하려 했고, 그 파장이 이승만에게도 밀려 왔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평안북도 선천의 기독교계 신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테라우지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조선총독부의 사건 조작이었다. 그 사건으로 135명의 한국인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심문 도중에 3명이 고문으로 숨졌고 많은 사람들이 옥살이를 했다. 그 사건의 대표급 인물인 윤치호(尹致昊)는 3년형을 살았다.

이승만도 위험한 인물로 지목되어 감시를 받았지만, 당장 체포되지는 않았다. 당연히 그도 체포대상이었지만, 한국 YMCA 총무였던 필립 질레트, 그리고 일본 YMCA 지도자인 존 모트 같은 미국인 선교사들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이승만을 체포하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본인들을 위협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에 있던 동북아시아 감리교 책임자 해리스 감독이 ‘105인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것도 그의 체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아서 브라운 박사의 한국 방문도 이승만에게 도움이 되었다. 일본에 잠시 와 있던 하버드 대학 총장 찰스 엘리엇의 105인 사건 진상 조사 활동도 이승만의 체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보호막도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에게 남은 길은 애국계몽 운동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한국을 떠나는 것뿐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을 떠날 것을 적극 권유했다.

그때 마침 세계 감리교 총회가 1912년 5월 미국 미네소타 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 회의는 4년마다 열렸다.

이승만은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거기에 참석할 한국 대표로 뽑힐 수 있었다. 그가 한국 대표로 뽑히는 데는 배재학당 동창이자 인사동 중앙감리교회 책임자인 이경직(李璟直)목사의 도움이 컸다.

이승만은 37회 생일인 1912년 3월 26일에 회의 참석을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망명 길이었다.

출처 더자유일보

신앙과 삶



이연종 목사
한결교회 담임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혼동한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일이되고 오히려 사람의 일로 자책하고 비참해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된다 무엇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일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도 아니다 주어지는 현실이 어떻게 의도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안목이 판단할 수 없는 초월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바울이 빌립보교회를 개척하고 옥에 갇

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제 시작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했을까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이는 현실로는 너무도 답답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빌립보교회에 복음의 진보가 있다 오히려 신앙이 진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다.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과 능력이 아니다 바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 것도 할

혼동

수 없었다 다만 옥에 갇혀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들이 일해서 하나님의 결과를 모자람없이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만 주신 현실을 살아갈 때 그 정황속에서 의도된 결과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진리를 받아낼 수 있는가? 현실을 사는 동안 혼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불안과 염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 작용할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가 현실과 조건을 넘어서게 한다.

내가 복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혼동은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이해가 뒤섞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보면 혼동은 오히려 과정 속에 당연한 것이다

결과를 향해 필요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목적된 결과를 가지게 되는 존재가 가지는 무궁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일체의 비결은 결국 현실이라는 끝나지 않을 혼동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이연종목사는 한결교회와 대신총회신학교 교수

김두현 목사의 이것이 목회 본질이다

‘밀레니얼 세대’ 품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변해야



김두현 목사
21C목회연구소 소장,



▲ 지난해 9월 6일 경기도 화성 동탄교회에서 열린 전국 교회 리더 컨도림 수련회 모습. 21C목회연구소 제공

교회는 젊어져야 한다. 왜 젊어져야 하는가. 젊은 사람들이 시대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1980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4020세대)를 가리켜 밀레니얼 세대로 한다. 이들은 컴퓨터 인터넷 정보기술(IT)에 능하고, 자기표현과 욕구가 강하며, 소비와 취향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주장을 펼친다는 특징이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누구인가

사회에선 모든 분야가 이미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노동 성의식 결혼 삶에 이르기까지 과거 어느 세대에서도 볼 수 없던 급진적이며 변혁적으로 트렌드를 이끄는 것이다. 반면 교회는 어떤가. 밀레니얼 세대가 추구하는 변화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점점 세대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들로 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아닌가.

밀레니얼 세대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전통적 기독교 가치관을 거부하고 성직자를 존중하는 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주변으로 밀어내며 기독교의 가르침을 편협하고 비판적이며 위선적이라고 매도한다. 심지어 기독교 자체에 대해 적대적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나 성경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윈주의 문화의 영향과 세속주의의 가속화에 따른 회의론, 이념적 갈등으로 기독교를 거부하려는 충격적 세대인 것이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와 기존 세대 간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 내부에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밀레니얼 세대를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는 교회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며 한국교회의 미래가 걸린 과업이다. 그들을 품는 교회를 위한 3가지 변화를 촉구

어떻게 밀레니얼 세대를 품을 수 있나

첫째, 소통과 대화를 할 때 모두가 인내하라. 밀레니얼 세대와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더 어렵고, 서로 일치를 이룰 때까지 진솔한 소통이 되려면 기존 세대가 기득권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교회 내부는 너무 조직화했고 제도화돼 있어 그들과 차이를 뛰어넘어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런 변화 소용돌이 속에 한국교회가 도태되느냐 아니냐는 20~40대의 수용 능력에 달려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그들의 말과 주장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어떤 주제와 의견, 논란거리들에 대해 비난 비방 방어 반감 증오로만 반응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줄 수 없게 된다.

미국 기독교 설문조사 단체인 바나그룹의 대표 데이비드 키네먼은 “좋은 대화가 이뤄지려면 귀담아듣고 생각과 감정으로 동참하며 내가 틀렸을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상황을 상대의 처지에 서 보며 공감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커뮤니케이션의 질과 방식을 얼마나 세련되고 진지하며 포용력 있게 발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젊은이들이 오는 교회가 되려면 그들의 언어 생각 감정 관심 문화를 복음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서로 견해가 달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듣기 위해 참된 관용이 필요하며 대화는 서로의 차이점을 찾기보다 공통점을 향해야 한다. 기존의 예배나 설교, 모임에서도 젊은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가 제공돼야 한다. 무엇이든 질문과 대답이 자연스러운 교회 분위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둘째, 극단적 냉담함의 걸림돌을 버려라.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고 고백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주변에 교회가 많아도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느끼고, 간혹 친구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 4020세대는 기독교와 교회를 경계하는가. TV나 매스컴, 대중매체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강하게 비판한다. 복음을 통한 회심이나 전도, 공공의 선을 위한 모임 등 종교적 신념과 실천적 행동이 광장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지키면서도 극단적 종교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소금과 빛, 사랑과 섬김, 화평과 회복을 위해 씨름해야 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안팎으로 필요한 것이다.(마 11:29)

셋째, 자기만족과 개인주의를 깨뜨려라. 밀레니얼 젊은이들은 지금의 기독교 가치관과 도덕, 신앙을 제약이나 통제, 규범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음악 영화 TV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앱 스포츠 여행 웹사이트 SNS 쇼핑 외식 등에서 자신의 만족을 갈망한다. 그들에게 인생 최고의 목표는 삶을 즐기는 것이다.

그 결과 자살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폭력 성) 독신 동성애 등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같은 세속주의에 대해 더 나은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밀레니얼 세대를 예수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키네먼은 그의 책 ‘좋은 신앙’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하기+믿기+살아가기=좋은 신앙’이라는 공식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한국교회는 밀레니얼 세대를 품는 교회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사설

코로나 시기 뉴 패러다임 쉬프트 목회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은 대한민국에도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인명 희생과 경제 대란, 사회 변혁, 삶의 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몰고 왔다. 그러나 충격 중의 충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과 유사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급속하게 확산되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백신 개발이나 특효 신약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과 최대의 문제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와 인간의 메커니즘 타락과 붕괴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정부이든 국민이든 획기적 대책이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모든 생태계가 총체적으로 바뀌었다. 교회관, 목회환경, 믿음의 질, 사회흐름, 대중 의식이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변했고 한국교회는 대응이나 대책을 세우기 전에 대형교회의 판단에 의존하여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지금은 교회 풀뿌리까지 충격을 받는 위기에 있다. 한국교회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깊은 자성과 회개, 철저한 성경중심의 믿음, 현장의 복원과 교회 회복에 모든 열정과 희생 감수를 해야 할 엄중한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아직도 전혀 위기의식이 없고 처절한 자기회생과 상징적 순교각오의 정신이 아닌 코로나 이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버려야 한다. 지금은 목사와 장로는 물론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주님처럼 기도할 때이다(눅22:44). 그리고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깨닫고 자신의 믿음은 물론 기반이 견고한 교회, 기본에 충실한 목회, 성숙하고 성화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자신과 과거를 탈피하고, 비전과 미래에 가치를 두고, 희망과 용기로 교회를 일으키는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을 모든 교회들이 선제적 대비를 통해 모네텀과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 3가지 통찰력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

첫째, 코로나에 대한 성경적 이해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코로나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

씀을 텍스트로 제시하지 않았다. 성경의 깊이 있는 탐구와 관찰, 말씀의 신학적 체계화, 강력한 실천과 경협의 현장을 지키는데 안일, 방임, 방담, 방치로 초기 대응 실패로 위기를 자초했고 6개월의 긴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극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과 시야를 바꾸는데 있다. ①코로나COVID19-현재-바이러스 전염, 재앙, 종말의 시각-불안, 공포, 기피-3밀(밀집, 밀폐, 밀접)-3불(불안 조성-마스크쓰기, 거리두기, 긴급제한 문자)-집단감염, N차감염, 잠잠이감염-shutdown, lockdown--단절, 고립, 불신-팬데믹 ②포스트post 코로나-after에프터-종식, 퇴치, 페이드fade, 괴멸 이후-기대, 대책, 역활-new normal(untack/비대면, ontack/가상대면, contact대면)-시기상심 ③위드with 코로나-confront직면, 네트워크, 참여로의 전환-비상, 혁신, 진취-비전제시, 모티베이션, 플랫폼

둘째, 변화시기의 골든타임golden time 설정이다. 2020년 한국교회는 136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의 블랙홀black hole이 될 것이다.

코로나 중력은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빨아들이는 입구의 힘이 되어 한국교회를 초도화시켰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화이트홀white hole이 되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서 블랙홀보다 더 강력한 힘의 출구를 만들어 폭발을 일으키는 화이트홀은 마치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강한 빛과 성령의 역사이다. 앞으로 5개월 코로나 종식과 5대 회복(예배, 믿음, 가정, 교회, 나라)을 위하여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의 불을 밝혀 어둠과 흑암과 악의 세력, 사탄을 이겨내는 출구를 만드는 처치 플랜팅, Acts29를 론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를 통해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블랙홀 쇼크에서 화이트홀 출구를 찾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 때 교회세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실성을 높여야 한다.

①리더leader-control tower-리더십을 통한 캐스팅casting 파워-3전(비전, 도

전, 승전) ②메시지message-답, 솔루션solution 해법, 인지-정확, 신명, 실제 ③매뉴얼manual-혁신 프로세스, planting system, provision-미래, 생존,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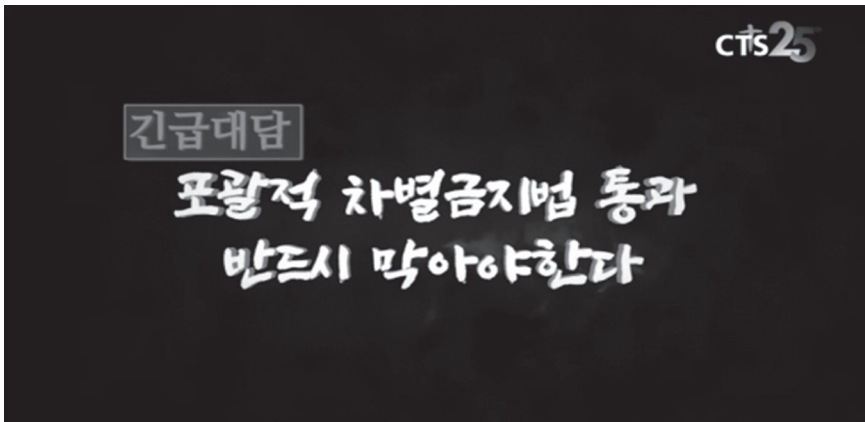
셋째, 원칙중심의 메시지와 리더십 고취이다.

한국교회의 토양은 실리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로 명확성, 일관성, 확실성이 미약한 것이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가 섰다운shutdown 되었다. 이제는 개별적이며 산발적 메시지가 아닌 일치, 원칙, 동일한 메시지로 통일되고 설교자 자신을 위한 공로주의, 우월주의, 성공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에 영적 리더가 없는 비극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각성해야 한다. 교회의 무지와 자기주장, 폭력 저하와 신앙의 영역 축소, 사역의 질과 섬김의 과정 약화, 교회 경험과 영향력 결핍을 속도 있게 변화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①텍스트text 중심-본질, 가치, 기본-진리, 복음, 말씀의 복원, ②원형prototype 교회-초대교회, 개혁신교회, 사도행전 교회 전환 ③플랜팅 처치-3re목회-리셋reset, 리포맷reformat, 리쥬resume-혁신적 모델, 특별한 비전, 탁월한 리더십-오리진origin/근원적, 시스템system/체계적, 글로벌global/세계적 교회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특별하고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한국교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하여 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다함께 고군분투하여 반드시 교회세움을 이루는 전환기를 위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며 먼저 대책이라는 수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목사 자신이 강력한 리더가 되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비전과 용기와 희망을 보여주는 혁신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처치 플랜팅은 프로그램이나 목회 아이디어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명이며 책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 봇물처럼 채택



▲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긴급대답(사진 cts25 캡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역차별을 초래하는 법이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 선을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기 때문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제 11조 1항에서 말하는 평등은 법적 평등을 의미하고 법적 평등은 자유권 행사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적지향,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하는 것에 따른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도 금지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도 할 수 없게 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사람들의 개 개인이 가진 관점의 차별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동성애에 대하여 비판하는 설교, SNS,

강연 등에서 듣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내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만 하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초래된다. 또 문제는 이 법을 어기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2배-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따를 수 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동성애자들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동성애의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게 된다. 동성애의 부정적인 내용을 가르쳤다가는 처벌을 받고, 여러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동성애의 죄성을 주장하는 성경이나 교회는 고립될 수 밖에 없다. 이 법은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칠 수 없게 만들고, 기독교를 고사시킬 수 있는 악법이므로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연시 기자



설동욱 목사
예정교회 담임

지금 세상은 길이 혈관처럼 뻗어 있다. 비행기가 나는 하늘길, 배가 항해하는 바닷길,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골목길, 작은 풀숲에도 오솔길이 나 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 인간 스스로가 길을 막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고 있다.

세계가 코로나의 공격을 받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를 반강제적으로 제압한 나라보다 자유를 허락한 선진국들이 더 크게 당함으로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국가가 어떻게 해달라는 경찰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허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선진국들도 자기들 살기가 바빠서 세계화 시대가 아닌 각자 잘 살기 위한 민족주의가 생기고 있다.

그야말로 코로나 빅뱅으로 뒤바뀐 미래가 올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어서 세상

이 불안해지니까, 세상을 다스릴 큰 통치자를 원할 것이고, 이것이 어찌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때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사는 길인가, 죽는 길인가!

돌이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성령으로 살아가던 시대, 올해 여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설동욱 목사(예정교회 담임, 사단법인 로우 대표)

21세기 개혁신학의 요람 **총회신학원** 입학요강

2020학년도 전,후반기 특별장학생 및 신·편입생모집

■ 모집과정 및 자격

모집학과	모집과정	인원	구분	전형방법
학부과정	신학사(Th.B.)과정 신입	00명	주/야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자
대학원과정	신학석사(Th.M)과정 신입	00명	주/야	M.Div 과정 졸업자
	목회학석사(M.Div)과정 신입			학사학위 소지자 동등 자격자(정규신학졸업)
특수반 - 강해설교반	강해설교, 설교작성, 설교전달을 집중강의하는 과정			
- 영어설교반	해외사역과 전문영어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발음, 영어구조, 전달 등을 교육하는 과정			
- 편목과정	본 교단에 가입하거나 목회자들이 정회원이 되게 하기 위한 특별교육과정			

■ 전형일정 및 방법

-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 수시 접수
 나. 전형방법 : ①서류 ②면접
 다. 전형일자 : 상시 모집
 라. 전형료 : 30,000원(원서대 무료)
 마.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학(원) 졸업(하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동등 자격자는 해당 증명서 - 각 1부
 (학부과정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또는 동등 자격증명서(검정고시 합격))
 3) 당회장 또는 노회장 추천서 - 1부
 4) 주민등록등본 - 1통
 5) 반명함판 사진(원서부착포함) - 3매

■ 특전

입학생 전원 : 매학기 등록금(이사장학금) 5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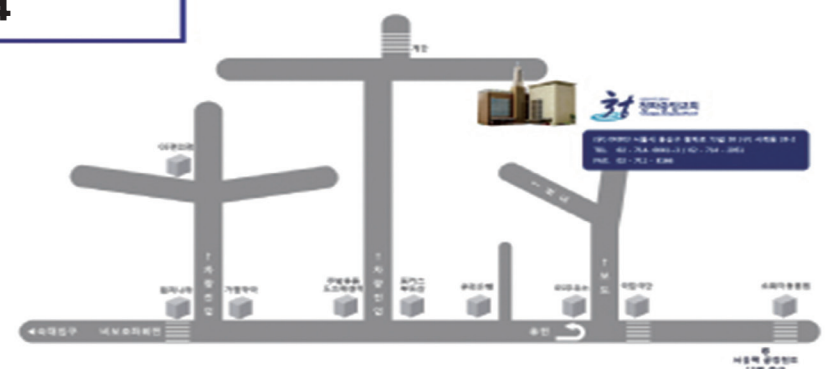
- 장학혜택 - 재학 성적 우수자 : 재학 기간 등록금 전액 면제, 봉사자, 특기자 등에 각종 장학제도 운영
- 수석졸업자 해외 유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구원(M.Div) 졸업자는 대신 총회신학교와 연계된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미국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으로 유학을 추천하면 유학 기간 중 규정된 장학금을 지급함
- 본교 졸업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사역할 수 있음
- 미국 Reformed University(미 연방정부 인가 대학)와 연계하여 학위과정 이수자에게는 미국 유학을 도와주며 우수한 신학교에 추천하여 등록금을 지원함
- 본 신학원은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통해 졸업 후 목회현장에서 성경 강해와 실천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계절학기(여름, 겨울)를 운영함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입학문의는 각 지역 CAMPUS별로 문의 바랍니다.

지역별캠퍼스

경기 남양주 CAMPUS | 010-4690-3301
 경인 부 천 CAMPUS | 010-5341-0154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 총회신학원 총회장 강대석목사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3길 58(청파동) 청파중앙교회(02-702-0041) 총 장 김향주목사
<http://www.ds1961.com>



면역력-미네랄 | 코로나19 예방

☆코로나 19 매출급증☆



죽염 9회 고체 분말 5회

3회 죽마고우 원장 고추장 죽염수 히트상품

© 연산



인산의학 월간지

구독신청시 무료보내드립니다.



☆ 목회자 특별할인혜택 ☆